

## 社會의 病的 現象 (三)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이러한 여러 가지의 奇妙한 比較는 數多하나 一々히 列舉할 必要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近世 社會學者 間에 社會가 有機物이라 함은 如何한 意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입니다. 우리가 中學校에서 生理學을 배울 때에 先生님이 (瑞國 國家學者 쉘른츨리와 갓치) 우리 身體를 一國家에 比較하고 身體의 各部的 作用을 國家의 各組織的 官能과 갓치 가리쳐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마음에는 생각하기를 아마 先生님이 說明을 便利하게 하느라고 이렇케 比較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只今 以上 諸學者의 說을 綜合하여 보매 便利上 必要로 比較할 뿐이 안이오, 참으로 社會는 動物體와 同種이다 相異한 點은 些少한 것 뿐이라 합니다. 『에언스트, 갑[에른스트 갑]』이라 하는 이는 所謂 機關投射說까지 主唱하며 現時 伯林大學 教授 「오스카, 해엇빅」까지도 此說을 採用하여 『有機的 生物인 國家』라는 著書까지 있습니다. 此說은 卽 우리 人類가 生活動作上 必要한 各種의 所用 諸具를 製作할 때에 우리 身體에서 그 模型을 짓는다 함입니다. 鐵槌는 우리 掌手를 模造한 것이며, 寫眞機는 우리의 眼機오, 顯微鏡을 發明할 때에는 眼機解剖學이 發見한 것을 多數히 採用하였다. 人類는 이와 갓치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우리 身體機關을 模造한다. 社會도 이 法則에 依하여 建設된 것이니, 電信機關과 갓흔 것은 곳 우리 身體의 神經組織이 아닌가 하는 學說입니다. 그런즉 以上에 列記한 比較는 學者님의 腦髓 中에서 우러나온 巧妙한 空想的 觀念의 作亂이 안이 라 社會를 眞正한 具體的 有機生物로 認定하라 하는 뜻으로 된 것 갓습니다.

五覺으로 直接 經驗할 수 없스니 社會를 具體的 有機物로 信하기는 어렵다고 이 學說을 攻擊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細胞가 우리 全體를 直接으로 經驗하지 못한다고 우리 身體를 具體物이 안이라 하기 不能하며, 宇宙의 眞狀을 直接으로 經驗하지 못 한다고 天神이 無하다 하기 不能한 것과 無異함

니다. 다만 社會學과 生物學이 아직 充分히 發達되지 못하여 『近似』하다는 것을 『全等』하다고 實際 生活上에 證明이 되지 못한 것은 一般의 遺憾이라 하겠습니니다. 그러나 明白한 것은 社會를 有機物로 觀함입니다. 無意識的으로나 或 有意識的으로나 社會는 自然法則에 依하여 組織된 後에 成立된 것인 즉 이는 分明히 有機體이겠습니니다. 또 그 生長과 壞敗와 如한 現象은 生長과 死亡과 如한 一般 生物의 發展 屬性과 無異한즉 社會體를 곧 生物이 안이라 할지라도 一般 生物의 發展法則이 社會에도 通用됨은 無疑하겠습니니다.

### 社會는 精神體다

그러나 社會의 主要體를 物質體로 觀함에 對하여는 疑點이 있습니다. 人類社會는 人類도 成立되고 人類는 物質體를 有한즉 社會도 物質體로 觀할 수 있다 함은 우리 身體의 細胞分子가 物質體이니 此로 成立되는 人類도 物質體에 不過하다는 唯物論과 無異하겠습니니다. 만일 社會가 物質體이면 物質界에 通用되는 物理 化學的 法則이 有效하겠습니니다. 그러면 社會는 모든 法律 모든 精神的 習慣이 無하여도 生存할 것 같습니다. 設令 人을 純全한 物質體라 하여도 우리 生覺 갖해서는 構成物의 單純한 集合體와 各 構成物의 一定한 性質上 內的 互相關係로 集合된 組織體와는 相異한 것 같습니다. 構成物 그것의 性質과 構成物의 一定한 互相關係로 成立된 組織體의 性質과는 相異한 것 같습니다. 木鐵石 等の 物質을 單純히 集合한다고 一家一屋이 成立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니다. 單純히 集合된 木鐵石의 物塊 外에 家屋을 建築함에 要用되는 그 分量의 多少關係라든지 그 性質上 互相關係라든지를 한 重要한 眞相으로 認定하여야 하겠습니니다. 社會는 時々の 風雨를 因하여 散飛 四方하는 一沙堆가 아니오, 人類의 性質로 因하여 自然히 生長된 暴風雨中이 라도 能히 그 形體를 保有하는 一石山과 같습니다. 如何한 革命史를 觀하든지 砂堆와 갖치 散壞된 社會가 無하얏습니니다. 此에 所謂 形體保有力은 各 構成物 間에 存續하는 一定한 共生的 關係로 成立된 것임입니다. 總構成 個物의 總括的 共生關係가 全體이며, 各 構成 個物은 此全體에 對하는 部分이라 하겠습니니다. 換言하면 部分은 物質이오, 全體는 此數個 以上 物質의 互相關係라 하겠습니니다 關係라 함은 一物質 或 一事件이 他物質 或 他事件에 對하는 作用입니다. 此에 關係라 함이든지 作用이라 함은 恒常 相對的임입니다. 絶對라는 觀念과 關係 或 作用이라는 觀念은 不可相容한다는 關係 外에 아모 것도 없겠습니니다. 三角形이 圓이나 四角形 或 其他 空間的 形體에 對하는 關係 內에서 三角인 性質을 有한 것 갖치, 水素는 酸素 或 其他 原素에 對하는 作用을 因하여 水素인 性質을 有함은 明白함입니다.